

인기목, 8.15기념 인천시 연합 기도 대성회

영적으로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목회자가 되길...

인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대표회장 조강수 목사 이하-인기목)주최로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소재 영광교회에서 지난 8월 18일 (목) 오후 12시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15 광복절 제71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연합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황귀례 목사의 사회와 유한나 목사의 찬양인도로 1부 인기목 8.15 광복절 제71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가 시작되고 황찬호 목사가 기도를, 성경봉독(롬8:1~2절)에 황선영 목사, 특별찬양에 영광교회 헬시바중창단,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방"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조강수 대표회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의 빼앗긴 서러움과 강제로 끌려가 험한 채찍에 노동을 당하고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전쟁터로 끌려가 남자들은 총알바지가 되고 여자들은 꽃 한번 피지도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성노예,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으며, 일제는 우리 인생을 처절하게 짓밟았다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해방시켜 주셨고,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으며, 오늘 우리 국가가 세계 선진대열에 우뚝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받은 민족이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가난에서 해방, 각종 질병에서 해방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으로 가난 때문에 질병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 축복받은 삶을 누리며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도루디아 목사의 찬양과 박봉수 목사가 봉헌기도를 올렸으며, 김성태 목사, 박광한 목사, 김해자 목사, 김은순 목사, 김순순

목사, 최건숙 목사의 순서에 따라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2.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3. 인천 북음화와 성시화를 위하여, 4. 동성애 및 이단퇴치를 위하여, 5. 인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와 영적지도자를 위하여, 6. 작은 교회 부흥과 어려운 목회자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2부 축복과 권면은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강변석 구청장, 남구 박우섭 구청장이 축사하고, 동성애법 반대위원장 최조길 장로가 격려사를 전하고 이어 섬김과 나눔의 대표인 성령 대망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인기목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는 8.15 광복절 71주년 행사에 참여한 목회자와 성도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 500여명에게 영광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맛있는 삼계탕을 대접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설장 3kg 한포씩 선물했다.

또한 영광교회와 조강수 목사는 인천지역과 서울, 그 외 지역에서 주일낮예배, 저녁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약 250~350여명의 노인들을

환영하고 섬기면서 점심대접과 교통비, 설장과 라면을 봉투에 담아 선물로 드리고 있다. 아울러 매주 목,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밥과 국수를 대접하고 성전으로 모시고 올라가 일일이 건강을 체크하고 축복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백의민족
꽤 오래 전에 우리 전통 장례식을 재현하는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 글과 사진 / 사진작가 박완근 목사(두란노교회)

태영호 귀순, 김정은 종말로

빨치산가게 태영호 일가 귀순에 종북반역세력 멘붕 패닉에

17일 통일부발표로 입국사실이 확인된 태영호(55세, 주영북한대사관 공사)일가에 대하여 대다수 국내언론이 '고위급 외교관 망명(亡命)'이라는 표제 보도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북한대사관 차석(공사)급 외교관의 대한민국 입국은 제3국 거주 북한인의 귀순(歸順)이지 망명(亡命)이 아니다. 망명(political asylum)과 귀순(defection)은 엄밀하게 구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탈북(脫北: escape from NK)과도 구분함이 마땅한 표현이다.

그 외에 위험으로부터 도피(逃避:exile)나 교전중인 적군 또는 침투공비의 투항(投降:surrender)과도 구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언론이 특종으로 제목을 잘못 뽑으면 인터넷이나 종이신문, 방송, 통신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베끼는 과정에서 오보(誤報)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것이다.

영국주재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의거(義舉)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휴전선이북 땅을 불법점거, 정부를 참칭(僭稱)한 반국가단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급 간부가 가족과 함께 조국(祖國)인 대한민국 품에 안긴 귀순(歸順)이지 북한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북한국적'을 유지한 채 임시로 대한민국에 의탁한 정치적 망명(亡命)이 아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망명(亡命)이라고 보도를 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형식상으로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김정은 3대 세습 살인폭압 독재체제를 정부로 승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북한국적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으로 망명한다는 것은 실정법상으로도 불가능한 한 오보이다.

1997년 2월 12일 북경주재한 국대사관을 찾아 '망명(亡命)'을 요청한 황장엽 노동당비서에게 명목상 망명을 허용했던 것은 공산당 1당 독재 중국정부와 외교적 필요에 따른 임시방편이었을 뿐, 황장엽이 1997년 4월 20일 입국직후 대한민국국적을 자동인정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음으로서 망명이란 애당초 성립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변에 귀순한 태영호의 경우는 소위 김일성 효위병 출신이라는 빨치산가게 명문 태병렬(太炳烈, 1916~1997) 북괴군 대장의 아들이로서 북한체제의 성골(聖骨)이라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인 소위 백두혈통을 떠받치는 진골(眞骨)적인 빨치산가계가 등을 돌리고 귀순해 온 것이며 이는 김일성가의 대물보가 내려앉고 기둥이 부러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사가 기쁨조 천출(賤出)인 김정은의 파멸을 뜻한다.

예로부터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오동일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안다.(梧葉一落知天下至秋)"는 말이 있듯이 이번 태영호 일가 귀순사건은 김정은 3대 세습폭압 살인독재 체제가 이미 결장을 새 없이 급격한 붕괴과정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본다.

김정은 체제붕괴가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론을 찾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은 "북한이 망하면 우리도 함께 망한다."고 하는 박지원류, 위수김종 친지김종 주문과 '헬조선' 저주를 입에 달고 살아온 주사와 친북(親北)/종북(從北)/송북(崇北)성향 반역세력에게는 최후의 날(Doomsday)을 맞은 패닉(Panic)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반영이 성주 사드배치 반대 신드롬으로 나타났는지 도 모른다.

백성묵 대기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총회 제101회 총회 공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셀라) 시84:4.

주제 :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총회(롬8:26)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박사
(천북교회)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전예복 목사
(신광교회)



임상국 목사
(천북복지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서제식 목사
(풍성한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전수 장로
(천북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오후 1시부터 예배와 제101회 총회개회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구/가산동 151-47)

- 장소 : 동천교회(총회장 이규필 목사시무)
- 전화 : 총회장 H.P 010-7474-3173, 02)854-1326, FAX 02)496-0181

본 교단 합동보수총회는 뜻을 같이 할 개 교회 및 교단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호석 목사

사단법인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구/가산동)
총회장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야당 정치인들의 패배주의는 50년 전 수준”

중국 덩푼에 지레 겁먹고 알아서 기는 것도 모자라 굴욕까지

중국 언론은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 연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을 비난하는 형태나 수준도 비슷하다. 반면 한국의 언론들은 중국 언론의 양무세 역할만 한다. 중국 관료들의 보복성 발언이 정도를 넘어서도 중국을 비난하지 않는다.

심지어 북핵까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눈만 뜨면 박근혜 정부를 물고 늘어진다. 대만도 없고, 획기적인 방안도 없으면서 오로지 사드 배치 반대만을 부르짖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다녀와서는 잘했다고 큰소리 친다. 이런 꼴을 보고 중국과 북한은 패배를 부린다. 한마디 했다 하면 바로 한국 사회는 사시나무 떨듯 부르르 떨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은 사드 반대파들이 일조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중국의 덩푼은 계속 됐고, 그때마다 사드 반대파에 의한 덩푼은 확대 재생산 됐다. 급기야 이런 현상은 사소한 것까지 침소봉대해 중국의 경제보복이 시작됐으며 호들갑이다.

한국경제는 좌파와 야당 정치인들 때문에 중국과 싸우면 우리만 죽어간다는 피해의식이 깊이 뿌리 내려 있다. 때문에 지레 겁먹고 알아서 기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세상은 21세기인데 야당 정치인들의 패배주의는 50년 전 수준이다.

우리가 왜 중국을 겁내 북핵 문제조차 거론 못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은 중국이 국제 통상 규범을 무시하고 무식하게 보복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드러난 경제 보복을 한다면 중국도 역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마늘파동 때처럼 마음대로 주먹을 휘둘러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지금 중국의 행위는 내정간섭이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 언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중국의 기고만장을 꾸짖어야 한다. 사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남의 나라가 사드 배치를 하라 마라 할 대상이 아니다. 엄중히 따져야 할 일이지 중국을 달랠 일이 아니다.

중국은 항상 그랬다. 패 놔 근성을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잘못이 뭘지 잘 모른다. 그저 역적을 부리고 칼을 휘두르면 상대편이 발발 뿔 것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중국은 당장 대한민국 안보주권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사드 배치 반대를 요구하려면, 그에 앞서 북한의 핵부터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 순서다. 사드가 중국을 감시하려고 배치하는 것이 아닌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좌파세력, 종북좌파, 친북좌파, 좌파 매체들도 사드 배치 반대에 앞서 북한의



핵 제거에 앞장서야 한다.

만약 북한 핵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좌파들은 피해간다고 생각하는가. 따라서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좌파세력, 종북좌파, 친북좌파, 좌파 매체들이 받고 있는 사드 반대 운동은 당장 멈춰야 한다. 이는 우리를 위협하는 적국 앞에서 내부분열을 자초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가 사드 배치라면 정치권 언론이건 한목소리를 내야 이게 정상적인 국가다. 국가의 안보 앞에 여야가 어디 있고, 너와 내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결집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갇힌 돼지들 마냥 우리끼리 싸우다 나라까지 잃었다. 그 쓰라린 경험을 잊은 채 또 다시 우리에게 스스로를 가두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내정간섭은 벌써 대한민국 정치권을 들쭉시키고 있다. 인민일보를 비롯한 많은 중국 매체들이 “사드 배치 문제가 내년 대한민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한국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등 정치권여까지 하고 있다.

일부 경제는 자본주의를, 정치는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는 중국은 국민소득 1만 3천불이 되면 이번이 일어날 나라가 된다. 중국은

폭동이 일어날 것이며, 북한도 덩달아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 이런 나라가 뭐가 겁이나 알아서 기는 것인가.

중국어의 무역이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의 위협 앞에서 나만 생각한다면 나라가 왜 필요하겠는가. 나라는 나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정치권도 하루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놓고 아무리 정권 잡출이 목적인 정치권이라고 하지만, 중국이나 북한에 악용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 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용서해줘도 안 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북핵 방어 무기체계 하나 가지고 알가알부할 때가 아니다. 종북세력들이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에 빌붙어 결국엔 적화통일을 하려는 속내도 이번엔 확연히 드러났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드 배치가 밀려서는 안 된다. 이참에 사드 배치와 관련 과당이나 대안 없는 반대만을 일삼는 일당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야 한다. 이들은 만약 사드 배치를 철회 한 후 미사일이 날아오면 반대로 “아무런 대책도 없었느냐”며 정부를 물고 늘어질 찰거머리 들이다.

이제라도 내적으로 암적 존재가 된 종북좌파를 일망타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이 북한이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 언제까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민족으로 살 것인가.

편집부

파라과이 양창근 선교사

복음 전도자로 훈련받는 그리스도 정병들

지난 19일부터 21일 까지 93명의 전도자가 1,531명 전도

남미 파라과이에서 35년 이상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양창근 선교사가 지도하는 선교사 훈련원 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10세~15세)을 복음전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정병 훈련’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다.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그리스도의 정병 훈련’에서는 말씀을 통한 제자훈련, 담력과 창의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극기훈련,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전도훈련이 이루어졌다.

총 7개 그룹, 93명의 정병들이 6개월 동안 1,531명을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전도의 불꽃이 일어나면서, 그 주일에 18명이 새로 주일학교에 출석하였고 특히 한 명의 정병이 5명의 친구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다.

이들은 매주 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사는 동네에서 전도를



함과 동시에 한 달에 한번씩 공원과 소규모 등에서도 야외 전도를 이어갈 것이다.

지난 1993년, 천막교회 시절에 시작하여 첫해에 15명의 정병들이 6개월 동안 270명을 전도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병 훈련을 통해 전도의 불길이 새롭게 타오르길 바라고 있다.

특히, 이번 36차 그리스도 정병 훈련에서는 ‘2세대’ 그리스도의 정병들을 통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20여 년 전, 각 그룹의 리

더로서 훈련을 이끌었던 ‘1세대’ 정병들이 지금은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고 그 자녀들이 ‘2세대’ 그리스도 정병이 되어 온 가족이 복음전도자로 훈련받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전해주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군사로서 헌신할 것을 다짐한 그리스도의 정병들을 통해 파라과이와 남미 복음화를 향한 성령의 불길이 거세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한다.

보수단체, 박지원 의원 여적죄 고발 기자회견

‘5.18 조롱방지법’은 ‘빨갱이 법’이다

국민의 당 박지원의원이 여적죄로 고발당했다.

지만원박사와 애국단체들은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앞에서 박지원의원을 형법 제98조 간첩죄, 동법 제99조 일반이적죄, 동법 제93조 여적죄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의 죄, 동법 제10조 불고지죄, 동법 제12조 무고·날조죄, 형법 제283조 협박죄, 동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동



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324조 강요죄 및 국가보안법 제12

조 무고·날조죄 등 여적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을 비롯해 보수단체 대표 및 회원 3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지원 사형”을 외치며 지만원 박사의 애국심에 박수를 보냈다.

이에 앞서 박지원 의원은 누구든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르지 않는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이른바 ‘5.18조롱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복회원에게 수여됐다.

경축식에 이어 현대무용, 대중안무, 서예, 사물놀이 등 경축 공연이 진행됐으며, 일제 강점기의 아픔과 광복 과정을 몸과 붓글씨, 음악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는 성남시를 비롯해 13개 시·군이 별도의 광복절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박기표 기자

경기도, 15일 71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거행

경기도는 15일 오전 10시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7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거행했다. 이날 열린 경축행사에는 애국지사, 광복회원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관기관 단체장 등 7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날 열린 경축행사는 애국지사, 광복회원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관기관 단체장 등 7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은 국민의례에 이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시창: 조강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장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jtntv@hanmail.net / jtntvcp@naver.com
▶전화: (032) 672-3031(팩스경용) ▶직통: (070) 8230-0034
▶H.P: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원원)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창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 부터 출애굽하사!

서울시 광진구 화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천 031-634-3590)
부설: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예측성경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옥: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만성변비로 가가이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 남영수: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녀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역대상 16:34)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예/매/시/간/안/내

주일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 9:00 오후 1:2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유, 초등부	오전 9:00 오후 1:2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중, 고등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약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한평총, 이주태 대표회장 취임식 가져

하나님의 공의가 이뤄지도록 기독교신앙회복운동에 주력할 것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이하 한평총)는 이주태 장로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지난 13일(토) 오전 11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가졌다. 지난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한평총은 6만여 교회 1천2백만 평신도를 대표하고, 그들의 사명감당과 권리회복, 그리고 기독교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개발 및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평총은 창립 선언문에서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및 북한선교를 위해 평신도 단체들이 단결하고 화합하는 평신도 운동을 전개해야 함을 확인했다”며 “평신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지체들’(빌 2:5)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사

함은 △나부터 사과 △나부터 용서 △나부터 사랑이고, △매일 정시 기도운동 △이단 및 이슬람 저지운동 △국산품 애용운동 등의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중점 사업은 △원로목회자 섬김 △다음 세대 육성 △반기독교 세력에 대한 방어망 구축 등이다.

이날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주태 장로는 “한국교회는 짧은 세월 동안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못했고, 그로 인해 대사회적인 기독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한평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평총은 평신도의 회개운동, 성결운동, 헌신으로 기독교의 입장을 이



사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뤄지도록 기독교신앙회복운동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저는 종일 뿐이다. 대표회장으로서 모든 이들을 섬길 것”이라며 “한국교회를 섬기고 원로 목사님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감사예배는 지덕 목사(한기총 중경대표회장)의 설교, 특별기도, 이상모 목사(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 명예회장)의 찬양, 격려사 및 축사, 선언문 낭독, 구호제창, 이주태 대표회장의 감사인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순복음춘천교회, 작년에 이어 논산 육군훈련소 4천여명의 훈련병 진중침례

이수형 목사 “예수님은 누구신가?” 설교 메시지 전해

거룩한 발자취와 새로운 사도 행전을 향한 도전!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전도를 실천하는 사역이 군선교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신병훈련소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청년선교, 거룩한 사명 실천, 다음세대 선교의 중심이 바로 연무대군인교회이다. 연무대군인교회 훈련병의 80%는 군내에 와서 처음 교회를 나오고 있으며, 복음을 통하여 장병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연무대군인교회 사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훈련병들이 연무대군인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간증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1971년 최초의 진중세례식이 최전방 육군대대에서 시행되었고 154명의 병사 및 지휘관이 세례를 받았다. 그해 11월에는 1,460명이 세례를 받고 연무대군인교회이다. 연무대군인교회 훈련병의 80%는 군내에 와서 처음 교회를 나오고 있으며, 복음을 통하여 장병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연무대군인교회 사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무대군인교회에서 1990년 진중세례식이 다시 시작되어 전군으로 확산되었으며, 육군훈련소에서 매년 약 7천명의 장병이 세례를 받는 세계최대의 선교현장이 되었다. 2012년 5월 19일에는 진중세례식 시작 40주년을 기념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9,519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 세례식은 최대의 수제인원으로 기념스북에 등재되었다.

작년에 이어 제491차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침례식이 기하성 교단(총회장 오환동 목사)과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가 후원하고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관하여 2016년 7월 23일(토) 오후 2시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있었다.

장병침례예식 1부에서 분당에서는 박희수 목사(임수대교회)의 침례교리문답이 있었고, 선교관 소예배실에서는 김중현 목사(연무대군인교회)의 군선교현황 보고가 진행되었다. 2부 예배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청년부 찬양단의 찬양인도 후 김중현 목사의 인도, 민경원장로(순복음춘천교회 선교국장)의 기도, 박태하 목사(기하성 강원지방회 총무, 순복음봉덕교회)의 성경봉독, 갈릴리 찬양대(순복음춘천교회 주일부 찬양대)의 찬양, 이수형 목사(기하성 군선교위원장, 순복음춘천교회)의 설교, 정연빈 학생(순복음춘천교회 중고등부)의 축가, 강희목 목사(기하성 총무, 순복음만백성교회)의 축사, 우상중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장로회장)와 최순녀

권사(순복음춘천교회 총역선교회)의 축가기념품 전달, 서상국 안수집사(육군훈련소장)가 이수형 목사에게 기념액자 증정, 오환동 목사(기하성 총회장, 원주순복음중앙교회)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이수형 목사는 마태복음 16장 13~19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란 제목의 설교에서 “두려움과 떨림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고,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의 성경적인 축복된 삶을 살아가 수 있다”고 강조했다. 3부로 열린 침례예식은 박홍재



목사(기하성 군목단장, 21사단 군종참모)의 침례서약, 김대덕 목사(군선교연합회 총무)의 침례기도, 김중현 목사의 침례공포 후 침례식장으로 이동해 이수형 목사를 비롯한 40여명의 집례위원(기하성 목회자, 군종목사, 군선교회 목회자)과 40여명의 장모들(순복음춘천교회,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이 협력하여 침례예식을 실시했다. 침례예식을 진행하는 동안 관악찬양대(순복음춘천교회)이 은혜로운 연주를 하였다. 이번 침례예식을 통하여 훈

련병 4,012명이 침례와 축복기도를 받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순복음춘천교회 민경원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선교국장)는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을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며, 침례 장병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성장되어, 군선교에 이바지하고, 국방의 의무를 잘 마쳐서 사회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2016 하계수양회 공고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이요셉 목사
(목포포의교회)



이규필 목사
(합동보수총회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장한국 목사
(예장천리총회장)



박형희 목사
(성현교회)



정기남 목사
(신분방송대표이사)



강요셉 목사
(순복음복받은교회)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박동훈 목사
(대신교회부총회장)



정대성 목사
(삼성중앙교회)



홍한표 목사
(경북총회사무총장)



박수영 목사
(대구행복복음교회)



박경민 목사
(등불교회)



이범선 목사
(직전대표회장)



박한규 목사



허식 목사
(경북총회총회장)



박양우 목사
(경북총회 서기)



최순진 목사
(수목원교회)



박동호 목사
(별명교회)



최낙현 목사
(산성그리스도의교회)



박애수 목사
(국제복사기대원 원장)



박용수 목사
(주성청각장애교회)



임해숙 목사
(수원합동교회)



노은순 목사
(은총기도원)



김창기 목사
(운영이사)



이상중 목사
(새중앙교회)



이기학 목사
(포항지사장)



조명만 목사
(시온교회)



배정희 목사
(임음교회)



백운성 목사
(안산지사)



김병국 목사
(운영이사)



유은우 목사
(조예교정교회)



김창숙 목사
(예능부 기자)



한사라 목사
(문화부 기자)



송준석 목사
(예능부 부국장)



송정숙 목사
(문화부 기자)

- 일 시 : 2016년 9월 1일(목)~2일(금) 1박 2일
- 장 소 : 강릉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통합검색 = 산성그리스도의교회(상임이사 최낙현 목사사무)

- 전 화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010-7405-9191
- 준비물 : 성경/찬송, 세면도구, 개인휴대품, 간편복 ● 회 비 : 1인 50,000원
- 찬조금 : 하나은행 758-910292-36807 예금주 정기남
- 경기, 인천지역은 9월 1일 오전 8시30분 인천 영광교회에서 출발



지저스타임즈 & CJTNTV방송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교로 336(구)가좌4동 4-24 6574

☎ 사무실 032)574-6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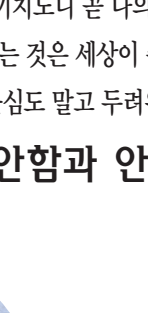
팩 스 : 032)578-8712

대표이사 : 010-5468-

대한예수교 평안교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14:27)

표어 :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교회



담임목사 장 승 현
REV. Jang Sung Hyun

성가대

- 협동목사 : 김제홍
- 전도사 : 허삼성

성가대

- 대장 : 윤철호 집사
- 지도 : 장성진 선생
- 반주 : 강다연 지매

예/배/시/간/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수요예배	수, 오후 7:30
금요철야 예배	오후 9시
주일학교	주일오전 9:00
중,고등부	토요일 오전 9시
성가대/청년회	주일오후 2: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2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곡로 62-5(봉곡리 55-6)
TEL 교회 : (041)356-0644
E-mail: sunghyun732@hanmail.net 홈페이지: <http://pyeong-an.com>

윤광식 기자

사)한기보협, 8.15기념식 및 제3회 신학세미나 열어

한기보협 신학위원의 주최 “성경원형(본질)회복”운동이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 한기보협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 신학위원회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8월 12일(금) 오후 1시~5시까지 서울시 종로 연지동 여전도회관 14층 제1강의실에서 제3회 신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본협 공동회장 이의근 목사 사회로 광복 제71주년 8.15 기념예배가 진행되어 본협 공동회장 김 암 목사가 기도를, 오현관 목사(대한예수교소순절성회 총무)가 성경봉독(단9:16-19)을, 광영민 목사(예장예총총회장)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광 목사는 설교를 통해 ‘광복절 기념예배를 통해 우리나라가 일제의 어둠속에서 광명의 빛을 찾았듯이 영적으로 어둠속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한기보협이 하나가 되고, 화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통성기도가 사라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모이지도, 기도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기보협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광명의 빛을 전파하는 단체로서 먼저 본을 보여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나라이고 남과 북이 십자가로 평화통일 되고, 교회 간에 화합되게 하며, 회개를 주는 협의회가 되자’며 기원했다.

이어 광정신 목사(공동회장)의 인도로 1) 국가 안정과 통일, 경제, 청년일자리를 위하여, 2) 협의회 회원교단, 단체발전을 위하여, 3) 한국교회와 차별금지법 취소를 위하여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아울러 신학철 목사(예장, 합동제일 총회장)의 봉헌기도, 지왕철 목사(대표회장)의 인사말씀, 민정식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이범성 목사(상임



고문)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한기보협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 땅에 사탄이 들어와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있어 세상을 조성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되돌려주었다. 이처럼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길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탄은 다시 찾아왔으며, 사람들을 타락한 지식을 사용하여 성경을 토대로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 내었고, 사탄의 둘째 방법은 종교적인 세상을 형성하여 다시 한 번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았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나님께

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사탄의 교묘한 술법이고, 술수이다. 이에 한기보협은 제3회 신학 세미나를 통하여 성경원형(본질)을 회복하여 참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에 있다며 인사했다.

이어진 제2부 신학세미나는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조정근 교수(광양신학교 학장/예장(개혁)총회장)의 제1강의 주제는 “성경원형 입장에서 본 지식이란?”, 김길중 교수(한국메시아니스트리안합신학원 학장/ 토라공동체 연합 총회장)는 제2강의에서 “성경원형 입장에서 본 여호와의 절기”, 박형철 교수(예장(호헌)총회 신학대학원 원장/바이블 아카데미 부원장)는 제3강의에서 “성경원형 회복적 설교방법”등을 주제로 4시간 동안 열강에 박수갈채를 받았다.

2016 그리스도의교회 3000명 운집 세계대회 열어

‘스톤-캠벨운동’으로 제2의 부흥을 다짐!

전 세계 그리스도의교회가 한 자리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 '2016 그리스도의교회 세계대회'가 지난 14일~17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계대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이며, 인도, 필리핀, 중국 등 해외에서 3000여명의 목회자와 성도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이번 대회에 초청된 강사진은 존 대리 총장(호프인터내셔널대학교)과 그레이 위드먼 총장(존슨기독교대학교), 오칼라 오티에노 목사(케냐 알파크리스천처치), 카렌 뮈렌도르프 박사, 라이스 박사, 키시모토 다키 총장(오사카바이블신학교) 등이 강사로, 또한 국내에서는 이강평 목사,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소강석 목사(새예언교회), 임진철 목사(홍천서면교회) 최원권 목사(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증경회장) 등이다.

대회장 이강평 목사는 환영인사를 전하고 감사했다. 그러면서 이 대회장은 “이 대회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교회가 한국에서의 부흥을 통해 세계그리스도의교회의 성장에 이바지하려는데 있으며, 현재 침체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스톤-캠벨운동’을 통해 제2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며 “선교의 주체가 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해 왔다. 하나님



이 분명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확신을 전했다.

또한 이번 세계대회의 준비위원장인 김탁기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묻고 계신다. 금번 세계그리스도인대회는 2000년전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며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한다”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 촉구했다.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는 지난 2004년 제68차 총회 때부터 세계그리스도인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2년 동안의 긴 노력은 열매를 맺어 '2016 그리스도의교회 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회장 임종원 목사는 “금번 세계대회를 통해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인 그리스도의교회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자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첫날 개회예배에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행 19장1~7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시대’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기원했다.

3박4일 동안의 일정을 마친 후 드려진 폐회예배에서는 특별히 한국그리스도의교회를 위해 헌신한 일꾼들을 세계 그리스도의교회에 소개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 가운데, 증경회장을 역임한 6명에게는 환원상이, 개척 공로를 인정받은 장로들에게는 환원공로상을, 50년 근속한 이들에게는 환원총상상이 수여되었으며, 따라서 40년, 30년 근속한 사역자들에게도 근속상이 수여되고 세계대회가 성료되었다.

학교에서「다양한 가족형태」를 교육시키라는 <박경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

당 소속의 15명 의원들(대표발의: 박경미 의원, 공동발의: 진선미 의원, 한정애 의원, 김영주 의원, 손혜원 의원, 유은혜 의원, 김민기 의원, 소병훈 의원, 신동근 의원, 도종환 의원, 조승래 의원, 이개호 의원, 전재수 의원, 최은열 의원, 문미옥 의원)이 지난 8월 3일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법률안」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가



족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뜬금없이 「한 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도록 한 점이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는, 맞벌이 가족, 동거 남녀, 한 부모 가족, 이혼한 남녀끼리 결혼한 가족, 동성애 동거자, 동성애자들의 입양권 보장을 통한 가족구성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의 헌법에서는, 결혼을 남녀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동성결혼은 인정될 수 없는데, 여기

에 은근슬쩍 「가족형태」에 포함시켜, 학생시절부터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 한다. 이는 젊은이들의 미래에, 결혼이 아닌 동거를 선호하고, 동성애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서구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와 개념이 만들어진 배경은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타파하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이 대중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혼란시켜, 가족제도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개념의 보편화 시도는 2006년 민주노동당의 성소수자위원회의 교육 자료에도 나와 있는 전라이다. 민주당 성소수위원회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정책을 20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위와 같은 사유로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법률안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박경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방송에서 한 부모가족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TV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부모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방송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공동발의한 의원들도 박경미 의원이 제시한, 한 부모가족을 모욕

하고 조롱한 방송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이나 하고 공동 발의한 것 인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개념을 법안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억지로라도 교육시키려는 것은, 목적에 따른 특권과 권력의 횡포로 보인다.

넷째, 각 의원실에 따라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개념이 달라도 된다고 주장한다. 법은 강제성을 띠며,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해석이 다르다면,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여러 법안을 내놓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성 판매자 합법화를 위한 법안’, ‘성 판매자에 대한 각종 지

원 법안’, ‘청소년 성 판매를 비범죄화하는 법안’, ‘군대내 자발적 동성애 허용 법안’ 등을 발의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15명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는 중이다. 20대 국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흔드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된 박경미 의원의 법안이, 동성결혼이나 동거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옹호·선전·교육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 법안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를 빼는 것으로 수정하겠다고 하면, 이를 공개적으로

약속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민에 삶의 질을 높이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번 경우처럼, 정상적인 결혼과 가정의 형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법안이라면, 입법발의자가 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안의 결과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부린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또 전전한 사회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국민들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런 오만을 가진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셨음이니라.(사60: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gho

❖ 목사님 집회일정 ❖

- 8월 22일(월)~25일(목)
- 9월 1일(목)~2일(금)
- 9월 5일(월)~8일(목)

철원성기도원
지저스타임즈수양회 특별강사
(본지 이사장)
청주금각기도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 부 목 사 : 이주홍
- 선교목사 : 정기남, 정재진, 노병주
- 협력선교사 : 김종록, 이두원, 차영월, 권오성
- 장 로 : 임철수, 이철국,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 심방전도사 : 원명숙
- 교육전도사 : 이민규, 이주영
- 전 도 사 : 양승숙
- 성가 대장 : 박남주
- 지 휘 : 박성진, 양호정
- 반 주 :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 야 예배 밤 11:00	학생부 청년부 연합예배 (토) 오후 6:00
주일 찬양 예배 오후 6:30	새벽 예배 오전 4:30	주일학교 예배 주일오후 1:00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구)가좌4동 4-24 ● TEL (032)575-1654 FAX 581-3723 ● http://www.youngkwang.net

하나님의 실존과 믿음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독 강조한다. 하나님이 불꽃같은 눈으로 항상 우리를 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말을 함부로 한다. 전혀 누가 안보는 듯 자기하고 싶은 대로하며 살아간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신다면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임으로만 살아계신 주를 외칠 뿐 정작 그들에게는 실존의 하나님이 안보이고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한다. 마음속에 계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분을 믿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보고 있다는 말이 실감 있게 안 들리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랍인지, 불인지, 공기인지, 구름인지, 물인지 어떤 형상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막연한 말만 되풀이 한다. 우리 인간의 뇌구조는 무엇을 생각할 때는 어떤 실체가 떠올라 뇌리 속에 각인되고 확실해진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어떤 형태론든 자기들 대로의 조형물이나 심벌의 모형이라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인 믿음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 어느 종교보다도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다. 성경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어떤 형태론든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에서는 공식적으로 우상이나 심벌들을 만들어 사용하여 오고 있고 개신교도 우상을 안 만든다 하면서도 심벌로 십자가를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죄인들을 죽이는 하나의 형틀에 불과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그 피물은 십자가를 신성시하여 금어지책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 하나의 상징물로서 표현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안 붙이는 교회도 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실존의 하나님을 대변할 수는 더 더욱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실존의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며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실존의 하나님을 보여 주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기사이적을 몸소 체험 하였으며 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토록 하여 주셨다. 또한 그들이 실존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에서 지켜 주셨으며 또한 성막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재앙이나 벌을 내리기도 하셨다.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만나를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 살려주셨으며,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메추라기를 원 없이 먹게 하고, 물이 없어 죽어 갈 때도 바위를 치게 하여 물을 강같이 쏟아 부어 주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십년동안 성막안에 실존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매일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품안에서 살아왔다.

누가 실존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겠는가?

음성이나 표상이나 기사이적으로만 나타내 주시던 하나님이 급기야 모습을 드러내셨다. 구약에서 성막속에 예수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표되었던 실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이땅에 현현하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셨으나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였다. 국지적이요 제한적이시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고, 이제 육

[칼럼]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신의 그분은 죽으심에서 다시 변화 받은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서 모든 인류에게 보혜사 영으로 나타나시게 된 것이다.

그러면 영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은 있을까 없을까?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는 예수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으로 성령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여두어 주님을 못볼 뿐이지 성령님은 실재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곁에 오시어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영안으로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과 늘 함께 살아야 한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오감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시며 우리 행동을 알아보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으시고 간섭 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인격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보시며 우리말을 다 들으시며 우리를 감찰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고 심판 하실 수 있을까. 인격이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등 오감이 작동해야 세워지는 것이다.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습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실존의 성령하나님을 바라보면서(히11:1) 그분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며 그분과 교통하며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실존적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히11:1)"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행2:25)"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옵고이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5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3. 한국 근대학교 초기 설립의 의미 1) 민간 선각자들에 의한 근대학교의 설립

우리나라의 근대학교의 설립은 1883년 개항장인 함경남도 원산의 지방민에 의하여 설립된 원산학사이다. 遼山學舍는 개항 후의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원산민과 일부관료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개항 초기에 서당을 개량하여 자제들은 교육하다가 1883년에 근대학교로 전환시킨 것이다. 원산학사는 당시 덕원부사인 정현석이 원산학사를 운영하는 지점으로 학사절목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원산학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정원은 문예반 50명 무예반 50명이다. 입학자격은 덕원군민, 타 지역사람으로 입학금을 내는 사람, 그리고 무예반은 제한이 없다. 교사는 교수 1명, 장의 2명, 장재유사 2명을 둔다. 학교사무관리는 도유사를 둔다. 교과목은 산수, 격지, 기계, 농업, 양잠, 체광, 국어(영어), 법률, 만국공법, 지리 등이었다. 그리고 학교의 제정은 원산 군민과 관리 등이 출현한 자금을 기반으로 했다.

원산학사는 다음과 같은 교육사적 의미를 가진다.

①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학교이다. ② 민간인과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③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학교의 설립이다. 전통적 서당교육에서 근대학교로 변환하여 설립하였다.

민간인에 의한 사립학교의 설립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부산의 개성학교(1896), 서울의 정선여학교(1897), 흥화학교(1898) 등으로 매년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1905년에 사립학교 수는 모두 220개가 되었다. 민간인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는 특히 1905년 이후에는 사립학교운동은 애국계몽운동으로 더욱 촉진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는 교육구국활동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한 애국심 독립정신 민족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교육구국운동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문명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면 일본제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여 수천 개의 학교설립이 되어졌다. 일본통감부는 사립학교령(1908)을 제정하여 억제하였으나 1910년에 학부로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 수는 기독교계 포함하여 2,250개교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의 설립은 교육사적인 의미가 크다. 사립학교운동은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개방정책에 의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외세에 의한 침략에 대응하는 국민정신의 발현이다.

2) 정부주도의 근대학교의 설립
국가에서는 개방정책의 실시에 따

른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재양성이 급선무였다. 국가에서는 개방정책에 따라서 1880년대에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외국어 특히 영어 해독자가 필요하였다. 영어 해독자를 위한 영어교육기관으로 동문학(1883)을 설치하였다. 동문학은 통리교섭 통상아문의 협관 겸 총세무사인 독일인 뮐렌드르프의 제의로 설립하였는데 통역요원을 양성하였다. 그래서 동문학을 통번역학교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동문관을 모방하여 동문학이라고 했다.

동문학의 학생은 40명으로 주로 영어와 일어를 교육받았다. 동문학은 1884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육영공원이 설치되는 1886년에 폐교되었다.

동문학은 통상아문의 부속기관으로 통역관을 양성하는 독립된 교육기관의 성격은 아니다. 그러나 영어교육기관으로 정부가 설립한 근대적 교육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4)

동문학을 폐지하고 정부에서는 育英實院(1886)을 설치하였다. 육영공원은 1883년에 민영익 등의 보방사들이 미국시찰을 한 후에 건의되었다. 보방사 일행은 미국 파견을 마치고 난 후 왕에게 새로운 개혁의 하나로서 교육기관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고종은 1884년에 이를 허락하고 정부는 미국인 교사 3인을 초빙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1886년 7월에 헐버트(H.B. Hubert)가 내한을 계기로 육영

김창룡 목사
하나님이지자인신교회 담임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改革모임

공원을 설립하였다. 육영공원절목은 국가에서 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이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의 학제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제 규칙은 18개로 되어졌으며 그 내용은 구미식 학교운영의 기본 준칙과 그 지침을 제시하였다. 육영공원의 입학생은 좌원과 우원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좌원에는 나이 젊은 현직관리로 우원은 젊은 수재들로 20명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수업연한은 3년이고 2학기제로 운영되었다. 교육내용은 영어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영어로 강의하고 교과서(수학 자연과학 역사 정치학 등)도 영어로 된 것이었다. 졸업생은 관리로 등용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당시 추진하던 근대 정부기관에 취업을 하였다.

육영공원은 1893년에 영어학교로 개편되고 1894년에 학제를 정비하는데 관립의국어학교(영어학교)가 되었다. 국가에서 개항 이후에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파도기적으로 수급하는 수단으로 근대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발전과정을 살펴볼게 된다. 갑오개혁 이후 정부에 의한 근대 교육기관들은 국가의 공교육으로 흡수되었다.

목사코너(79)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진리 총회장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 의미의 큰 집은 평수 넓은 큰 규모의 빌딩, 큰 부자집, 99간의 정승 양반집 등을 가리키지만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이 진리로 낳은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는 큰 집이니 분명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곧 큰 집입니다. 왜요? 가장 크신 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큰 집에는 귀한 그릇이 있나니”(딤후 2:20-21)

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을 불러낸 그분의 자제들인 성도들이 또한 한 공동체가 된 큰 집인 것입니다.

여기에 금·은으로 된 귀한 그릇이 있다함은, 그릇은 물론 성도들을 가리킴이요, 금으로 은으로 만든 것은 금·은 같은 진리로 낳은 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금 같은 진리는 금면류관인 하늘 최고 영광인 첫째 부활의 진리로 난 자요, 은 같은 진리는 은처럼 깨끗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 즉 영적으로 깊이 회개케 하는 말씀으로 난 자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케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고 했지요. 여기서 깨끗케 하는 것은 무엇

을 가리키는가요? 물론 씻어 말씀으로 깨끗케 한다는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케 함이지요. 이 진리는 요 17:17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세상 나라와 분리시키고(요 17:14),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주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 즉 순교자의 영광을 받게 하는 말씀(21-22절)이 바로 그것이지요. 즉 이 진리의 말씀으로 금은 그릇을 성별시키고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고,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까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보배로운 연단을 거치게 하면서 결국은 귀한 보배그릇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귀한 그릇, 보배 그릇이란 단적으로 순교 신앙에 올라 선 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가 목 베임 받을 시간을 받아 놓고도 편안히 자는(행 12:6-7) 즉 순교케 해주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선한 일을 위해 예비 되느니라. 복음 증거하며 또 고난 받을 때에도 주님처럼 견디며 예수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사는 자가 곧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이지요. 또 주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 많은 영혼들을 주를 맞이하도록 세우는 일하는 자가 곧 선한 일을 위해 예비 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정기환 목사

주일 예배 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용 목사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밤 8:30

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수양관 031)769-0692-3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담임 오종성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용진교회



담임 이상중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일 낮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우) 5535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원구역2길 15-5
전화 : 063)244-2374 010-9696-6377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혜숙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송숙 목사(무소속)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편정·1급~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나현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현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충남 공주시 일락산2길 6-1(봉황동)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완곤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은숙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침송교도소
침주교도소
침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법무부, 광복 71주년 4876명 특사... 운전면허처분 142만명 감면

박 대통령 “사면받은 분들 경제살리기 동참 기대”

광복 7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현 C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한 총 4,876명의 특별사면을 확정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142만여명이다.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정기간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사진=청와대)

이어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만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

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단체나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회적 공로와 죄질을 따져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 등 유력 인사는 이재현 회장을 포함해 14명에 국한됐다.

이 회장의 경우 자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인도적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이 일반 형사범으로서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특사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생계형 범죄나 정상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특사 대상자가 됐다.

이들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의 절반이나 3분의 2 미만을 복역했을 경우에는 형의 절반을 감경해줬다. 가석방 상태였던 36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복역 또는 가석방 중인 형사범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고 말하며 “경제인 등은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고 정치인·공직자 부패 범죄나 선거범죄, 강력범죄, 반인륜 범죄는 전면 배제했다”며 “이번 특사를 통해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규 기자



정일랑 총회장 긴급총회를 개최, 임원보선으로 출발

총회장 정일랑 목사, 부총회장 전복수 목사, 총무 박노경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인천시 연수구 청능대로 향기로운교회(정일랑 목사)에서 제100-1회 사태수습을 위한총회를 열어 임원을 보선하고 오는 9월 101회 정기총회까지 파행으로 얼룩진 교단수습을 위하여 행보에 들어갔다.

임시총회에 앞서 김춘택 목사의 사회로 경향교회 서기원 목사가 기도, 부총회장 전복수 목사가 성경봉독(요 4:24)하고, 총회장 정일랑 목사는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국가와 민족을, 교회와 노회, 총회를, 신학교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어 중앙노회 손찬환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감사 김춘택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을 갖고 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웨신총회가 파행되까까지의 불행한 과정을 총회장 정일랑 목사, 김춘택 목사, 박노경 목사가 보고를 한 후 사태가 수습되기까지 보선된 임원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총회장 정일랑 목사, 부총회장 전복수 목사, 서기 김춘택 목사, 부서기 여희정 목사, 회의록서기 서기원 목사, 회의록부서기 서부영 목사, 회계 감사홍 목사 부회계 고양희 목사, 총무 박노경 목사, 감사 허성인 목사 김춘택 목사 등이다. 따라서 증경회 고문 오궁열 목사 이동희 목사, 임철환 목사, 윤덕수 목사, 자문 허성인 목사, 김춘택 목사 등이다.

이날 웨신총회(총회장 정일랑 목사)측은 웨신총회(총회장 이영풍 목사)측 총무 신오창 목사의 문서조작과 증상모략으로 제1부 총회장인 전오수 목사를 강제 해임시켰다면 이에 사실관계 확인과 진실규명에 나선 정 총회장

과 회의록부서기 박노경 목사가 웨신총회(이영풍 총회장)측 윤리위원의 결정에 따라 해임되었다고 했다. 문제의 발단은 전()수 제1부총회장이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정오총장을 면담하고 직영신학교 유치에 답소를 가졌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고, 급기야 정일랑 총회장까지 해임시켰다고 말했다. 결국 웨신총회는 두 쪽으로 나누어졌다면서 가슴아파했다.

현재 웨신총회(총회장 이영풍 목사)측과 (총회장 정일랑 목사)측은 서로가 공문서 위조, 총회직인 등 사문서 위조를 주장하고 고소고발로 법적대응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총회장 정일랑 목사는 목회자가 고소고발로 법정에 선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보다 더 증상모략을 당할지라도 조속한 사일 내에 파행되어진 교단수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웨신총회 제101회 총회열고 총회장 이영풍 목사 선출

‘교단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이탈(제명), 분립된 관련자들을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어!’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지난 7월 28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백악관웨딩문화원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하고 직전총회장 이영풍 목사를 제101회 총회장에 선출했다.

웨신총회는 오전 10시 30분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성찬예식과 회무처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무처리에서 절차대로 모든 보고와 헌의, 청원 건을 처리하고 가일 청원한 호남노회와 남서울노회를 승인하고 새가족으로 맞이했다.

이날 웨신총회 제101회기에서 선출된 임원은 총회장 이영풍 목사, 부총회장 허창범, 김안식, 하종우 목사, 총무 신안창 목사, 서기 박우재 목사, 부서기 김영환 목사, 회의록서기 이병만 목사,



회의록부서기 오상열 목사, 회계 김정옥 목사, 부회계 최선녀 목사, 감사 이동희, 이이중, 이규목사 등이 선출되었다.

웨신총회는 신동근 목사를 총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집무에 들어가 6월 30일(목) 총회회의실에서 제10-3차 임시임원회를 열고 불법분립총회 규정과 총회이탈자 및 이탈노회 규정의 건을 다루었다. 본 건은 지난 6월 20일 총회

목회자 수련회에서 정일랑 총회장이 모든 임원회 결의, 정치부결의, 윤리위원회결의 및 조치 통보에 대하여 전면 무효화 선언하고, 모든 제명 및 영구제명 조치 해제, 사임 복권, 즉시 총회사무실 폐쇄, 임원회 해체, 총회본부를 향기로운교회로 이관, 직원총무 해임, 부총회장 해임 등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어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즉석에서 임시총회를 한 것은 불법이며 총회 불법분립을 한 것으로 규정, 총회 감사 요 자원위원장 김춘택, 허성인 목사를 총회 이탈자로, 분립총회에 가담한 수도.중앙.경원노회를 이탈자로 규정했다.

따라서 제100회기 제11-1차 임원회가 지난 7월 15일(금) 총회회의실에서 총회장 직무대행 신동

근 목사의 사회로 긴급안전 처리에서 “정일랑, 김춘택 목사의 총회직인 위조, 도용과 사문서 위조(법공문작성 및 배포)로 총회원들에게 불법공문을 발송하였고, 한기총에 허위분실신고로 인한 직인교체요청 공문을 접수함으로 허위분실신고 및 총회인장 위조와 총회사칭, 불법사문서위조(불법공문작성)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하기로 가결하고 제101회기 총회에서 그 간의 상황을 보고하고 교단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이탈(제명), 분립된 관련자들을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어!’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www.mokpodream.org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기도하는대로 꿈꾸는대로
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2016

2016년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꼭 전도합니다.



담임목사 이요셉

예배안내		
주일예배 AM 11:00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PM 06:30	새벽기도회 AM 05:00
주일밤 찬양 예배 PM 07:30	어린이 예배 일요일 AM 08:30	오후기도회 PM 03:00
삼일반 예배 수요일 PM07:30	중고등부 예배 일요일 PM 02:00	저녁기도회 PM 09:00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PM 09:00		철야기도회 AM 00:30

· 주소: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연산동) 전화/ 061) 277-0496 ·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1번, 600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양동교회



담임 황원찬 목사

살기는분들

원로목사: 황만제 (Senior Pastor)
담임 목사: 황원찬 (P)
장로: 김장일, 류근수, 윤조열, 정진수, 조영환, 정연철, 이종식, 김민철, 현상일(우수)
부목사: 장희중(학병회), 장년회, 황정
학동목사: 권오영(현행성경장령)
전도사: 이은자 (주일학교, 행정, 상담), 이남일 (전도, 상담, 구약), 이주교회 (김도경 목사(미국 남가주 침례의교회))
18303 AGUIRO ST, ROWLAND HTS CA 91748 USA
선교사: 진종국 (데이비드(미국) 김희진(미국) 호소산)
종재관: 윤혜미(미국) 나스나 (다문화가정)
지회: 한송이
찬양인도: 명현숙, 이상진, 안혜미, 김현숙, 정현, 김선희, 남지혜, 박종혁
반주: 진혜영 (실로암성가대, 피아노), 최나연 (주일예배 오르간)
형제애주일 찬양, 조수전(성악), 하예준(합창)

예배시간 및 모임안내

주일 1부 예배 주일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주일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00
삼일 저녁예배 삼일 오후 7:00
금요삼가이드회 금요일 9:00
금요구역예배 각구역별로
세신자영육요일 주일낮 12:30-1:00
축구 선수 교회 주일 오후 4:00

영아·유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30
중·고등부 모임 토요일 오후 4:00
대학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대학부 모임 토요일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모임 토요일 오후 6:00
말씀교제 모임 주일낮 12:50-1:50

(143-915) 서울 광진구 능동로17길 43(화양동)

교회 TEL : 02-461-5975 Fax : 02-464-5502 (부설기관/화양어린이집 02-464-5522)

대표 E-mail: hwayangchurch@hosanna.net 홈페이지: http://hychurch.kr

■ 靑松 건강칼럼(508) - '100세 시대' 건강관리수칙

93세 원로교수와 105세 현역의사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경영연구소 이사장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명주 서울대 의대 교수)의 '고문·자문위원 회의'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관인 합춘회관에서 지난 6월 23일 개최되어 필자도 오찬을 겸한 회의에 참석했다. 대한보건협회 명예회장이신 권이혁 박사님께서 참석자들에게 우강 에세이 XII집 <천천히 서둘러라>를 한 권씩 주셔서 감사히 받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대가(大家)이신 우강(又岡) 권이혁(權彝赫) 박사님은 1923년 경기도 김포에서 출생했다. 194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서울의대 위생학교실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미국 미네소타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영득하였다. 1956년부터 1983년까지 의과대학 교수로 봉직하면서 의과대학장, 보건대학원장, 서울대병원장,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문교부 장관(1983-85), 한국요원대학교 총장(1985-88), 보건사회부 장관(1988-1991), 환경처 장관(1991-92),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1996-200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1990-9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2004-06), 대통령자문 국민원로회의 위원(2009-10), 세계결핵제료운동본부 총재(2009-12), 세계평화문화재단 이사장(2016) 등 중책을 수행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세계학술원 회원,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국제보건의료재단 명예총재, 대한보건협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이혁 박사님은 '공중보건학' 등 전문서적 15권, '우강 에세이' 등 비전문서적 23권을 출간하였으며 2006년부터 매년 에세이집을 한 권씩 출간했다.

우강 에세이 XII집 <천천히 서둘러라> 내용 중에 원로(元老) 교수이신 권이혁 박사님(93세, 1923년생)과 일본의 105세 현역(現役)의사인 히노하라 시게아키(日野原重明, 1911년생) 이사장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에세이집 164-173쪽에 실려 있다. 2016년 2월 5일 동경에 소재한 신노인회(新老人會: Society of New Elder Citizens) 사무국 회장실에서 만나 두 시간 정도 대담한 후 식당으로 옮겨져 또 두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히노하라 이사장은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강연을 하였다. 첫 번째 강연은 제20차 세계 노년학·노인의학대회에 즈음하여 2007년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빛나게 산다 - 자신의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 약 1천여명 청중들에게 강연했다. 인생은 자신이 디자인해서 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생활방법·교제 상태·살아가는 보람(Quality of Life)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회는 李吉女 가천길재단 이사장(경원대 총장, 現 가천대 총장)과 朴相哲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의 초청으로 2010년 10월 5일 롯데호텔에서 '늙지 않고 잘 사는 법, 행복한 인생을 위한 나의 메시지'를 주제로 열렸다. 일본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문제, 100세 이상 장수자,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향후 연구영역, 노화방지의학(anti-aging medicine), 인간의 영혼성(spirituality) 등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가천의과학대학교는 10월 6일 대강당에서 히노하라 이사장에게 명예 의학박사학위를 수여하고, '히노하라 건강법·행복한 100세 장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서 히노하라 박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老年)을 보내는 비결로 ▲사랑하고 사랑받자 ▲도전을 시작하자 ▲인내하자 등 세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히노하라 선생은 1937년에 京都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한 후 성누가국제병원(聖路加國際病院, St. Luke's International Hospital)에서 내과의사로서 진료를 시작하여 전 생애를 바치다시피 근무하였다. 이 병원은 미국 루돌프 토이스러 박사가 개설한 병원으로 111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6층 건물 옥상에 십자가(十字架)가 세워져 있고 현관에 들어서면 예배당이 있다. 누가(Luke)는 의사이며,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성인(聖人)이다.

그는 병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명예원장으로 봉사하면서 1주일에 두 번은 병원에 출근하여 진료를 한다고 한다. 현재 성누가국제대학 명예이사장, 신노인회 회장, 라이프 플랜닝센터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비결' '新老人으로 산다', '인생의 四季'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잘 늙고 어떻게 잘 죽느냐' '삶이 즐거워지는 15가지 습관' '행복한 우연' 등 250권이 넘는 저서를 출판했으며, 그 중 150여권이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음악요법(音樂療法)의 창시자이며, 그가 만든 뮤지컬이 여러 곳에서 공연됐다.

히노하라 박사는 신노인(新老人), 생활습관병(生活習慣病, life-style related disease) 등 여러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었다. 일본에서 '노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여 65세에서 74세까지의 노인을 '전기(前期) 고령자(高齢者)', 그리고 75세부터는 '후기(後期) 고령자'라고 부른다. 이에 히노하라 회장은 75세 이상을 '신노인'이라고 부르고 '신노인회(新老人會)'를 조직하여 회장직을 맡고 있다. 신노인회의 기본이념은 사랑·인내·참조에 두고 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 중 자립할 수 있는 노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한다.

국적과 세대를 뛰어넘은 한국인 성악가(聲樂家) 배재철과 일본인 노의사(老醫師) 히노하라 시게아키의 우정이 일본에서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14년 김삼만 감독, 유재태 주연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피노>(The Tenor Lirico Spinto)의 실제 주인공인 테너 배재철 씨는 히노하라 이사장이 요양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합창단원들을 위해 작사·작곡한 '사랑의 노래'가 담긴 음반을 2015년에 냈다.

갑상선암(thyroid cancer) 수술 후 한때 목소리를 잃었던 배재철 씨가 일본인 팬들의 도움으로 일본에서 성대(聲帶)복원수술을 받은 뒤 성악가로서 극적인 재기를 했다. 이에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유명한 배씨는 도쿄, 나고야 등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히노하라 이사장이 대담을 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데 이어 앨범을 발매했다.

일본에서 지명도가 높은 배씨는 지난 2013년 히노하라 이사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미니 콘서트에 나선 것을 계기로 히노하라 이사장과 인연을 맺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배재철 성악가의 노래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랍로 세계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공헌"이라며 일본 활동을 적극 후원해왔다.

히노하라 박사의 신장은 162cm, 체중 63kg, BMI 24.2이다. 30세 때의 체중을 현재까지 증감 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오전 6시30분 기상, 오전 8시 출근 후 각종 회의, 오후에는 강연 및 특별레전지, 저녁 6-9시 쿠키, 밤 11시-새벽 2시까지 서류 정리나 글쓰기를 한다. 수면시간은 약 5시간이다. 국내외에서 연간 100회 이상 강연을 하며, 2시간 정도는 꽃꽂이 서서 강연한다.

그는 어릴 때는 운동을 좋아했으나 열 살 때 신장염(腎臟炎)을 앓아 운동을 포기했다. 의과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결핵(結核)에 걸려 몇 년간 요양을 했기 때문에 의사를 못 할 것이라고 남들은 말하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따라 건강이 달라지고 체질도 변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잘 먹기' '잘 움직이기' '잘 쉬기'를 실천해야 한다. 히노하라 박사는 장수 비결을 신체건강보다 정신건강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식호흡, 음악 감상, 명상, 일기와 편지 쓰기 등을 권한다.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므로 음식은 검소하게 먹는 것이 좋다. 동물성 지방, 설탕, 소금 섭취는 가능한 한 줄이고 우유, 생선, 콩류, 채소 등을 매일 먹는 것이 좋다. 운동부족은 노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걷기 운동은 근육을 단련시키고,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해 주고,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히노하라 박사는 1주일에 1-3회 출장을 가는데, 역이나 공항에서 약 8kg 무게의 가방을 들고 다닌다.

일본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나이에 대한 정의를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노인이 사회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주체가 되자는 취지로 2000년에 '신노인운동'을 시작했다. 또 노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 주고받기, 도전하기, 인내하기'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2005년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은퇴 후에 갑자기 확 늙는 사람이 많다. 이에 혈액에서 물러나면 새로운 일을 해보도록 한다. 일본 신노인회 1만2천명 회원 중에는 70-80세에도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일을 배우고,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다. 즉 나이를 먹을수록 정열, 꿈, 호기심 등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건강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건강한 느낌'과 어떤 환경에도 잘 순응하는 '적응력' 두 가지가 중요하다.

히노하라 박사의 '신노인 長壽 건강생활' 법칙은 다음과 같다. ▲죽는 시간까지 인생의 현역으로 산다는 자세를 갖자.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항상 창조하는 일을 하고 남을 위해 살자. ▲살기 어려운 것은 어느 세상에서나 똑같다고 생각하자. ▲남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사람들과 활발한 교제를 하자.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에도 귀를 기울이자. ▲항상 걷는 습관을 지니고 몸을 쉴 새 없이 사 용하자. ▲노년 건강의 최대 적은 낙상과 골절이므로 잘 구르는 연습을 하자. ▲몸에 좋은 심호흡과 복식호흡을 하자. ▲웃음으로 얼굴에 주름을 늘려보자.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의사를 찾자.

히노하라 이사장은 59세 때 일본 학생 운동권 출신의 좌익 공산주의 동맹 적군파(赤軍派)가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갔던 'यो도호 사건'을 직접 겪었다. 1970년 3월 31일부터 4일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서울 김포공항에 내려 자유의 땅을 밟았을 때 느꼈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때부터 죽었던 삶을 새로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다.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죽음을 맞이 보다는 건강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후회하지 말고 미리 죽음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창조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내 인생에 은퇴는 없다.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뛸 것이다."라고 말한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의 말을 명심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하여 식생활, 생활습관, 마음가짐 등이 삼위 일체를 이뤄지도록 삶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

"3박자 건강" - 건강문화 창조!(62)

"신체 특성 고려한 운동방법 탐구
최상의 건강유지"

황성주 박사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 후배의 책상머리에 쓰여 있는 좌우명이 유난히 크게 보였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건강'이라는 글이었다.

자신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되 그 건강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좌우명이었다. 비록 7자에 불과한 글이지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훌륭한 건강철학이라 하겠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관계의 틀 안에서 살아간다. 내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수록 나는 공인으로서 존재하는 셈이 된다. 건강은 잔잔한 파장을 가지고 있다고들 한다. 필자 역시 건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덩달아 건강해 지는 건강의 파장을 경험하곤 한다.

사회학적으로 질병을 파악할 때 '외부성'이라는 독특한 현상이 흥미거리로 대두된다. 즉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기승을 부릴 때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단지 그 전염성에 의해 질병의 희생물이 될 뿐 아니라 질병의 확산에 기여하게 되는 특성을 말한다. 이제 나 자신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방지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족을 위한 건강', '이웃을 위한 건강',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최상의 건강'을 목표로 삼아 부지런히 건강의 씨앗을 심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남이 먹는 보약이나 건강식이 좋아 보이고 색다른 방식의 건강법이 유행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똑같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임을 기억하라. 자신의 몸의 상태는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개발하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하지 말자. 모든 건강법을 자신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다. 자신에게 쉽고 적절한 서너 가지 방법만이라도 확실하게 실천하여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강으로의 길은 모든 구도자에게 항상 열려있다. 자신의 건강문화를 창조하자. 건강에 대한 열망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이라는 기나긴 경주에서 끊임 없이 달려가는 삶이라는 알찬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강에의 탐구는 미완성 교향곡이다.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상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함.

◆ 과점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상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에녹부흥신학원

설립자 대표	이사장 총동문회장	학 장	이사진	이 사	이 사
곽명민 목사	주찬양 목사	임순학 박사	정기남 목사	송미순 목사	김영숙 집사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조석산목 부총사	심기서목 부총사	김성호목 부총사	이강호목 부총사	이강호목 부총사	이강호목 부총사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곽명민 교수	박형모 교수	모성훈 교수	심기서 교수	이강호 교수	한영일 교수

설교학	복음송이론/설교	교회음악사범반수	히브리어	양성학요원복음	기독교인(신앙인)가
윤동훈 교수	김진우 교수	김성기 교수	박경자 교수	주찬양 교수	김영진 교수

신론/기독론	모세오경	성경원/구원론	교회학	시편	사무국장
심기서 교수	주찬양 교수	제갈요한 교수	최동준 교수	김성기 교수	김영진 전도사

• 수업일: 기독교능력과정 - 매주 목 오후2시 ~ 오후5:30분.
금, 토 오전 10시 ~ 오후6:10분.
신학부·연구원·매주 목, 금 오전 10시 ~ 오후6:10분,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학술원·매주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찬양치유교실 - 매주 목 오후1:30분 ~ 오후5:30분.
• 과정 통신으로 교육할 수 있음. • 중식 및 지방분은 숙식제공

장소: (인천)등불교회
주소: 인천 광역시 남구 능해길 5(구, 송의1동 441-45)
문의: (사무국장) 010-6778-0651 (대표) 010-2080-0651

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
하계수련회 개최 공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강사 장한국 목사
(예장진리총회장)

- 일 시 : 8월 22일(월) ~ 24일(수)까지
- 장 소 : 컨스턴티아(충주점)
- 주 소 : 충북 충주시 양성면 산전장수1길 103
- 전 화 : 043-840-2728
- 노회연락처 / 010-9621-9627(박민규목사)
- 준비물 : 성경/찬송, 세면도구, 개인휴대품, 간편복
- 회 비 : 1인 50,000원
- 주최 : 대한노회, 협찬 :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대한노회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교로 10, 701호 대림프라자 고층5내손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중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19~20)

- 강도사 : 정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부이사장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학생회	토 오후 5: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청년회	토 오후 6:00
새 벽 예배	새벽 5:00	예배전 구역예배	금, 토 11:00
금요일예배	밤 9:00	삼전도 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00

◇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초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 있는 교회
설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16039)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교로 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 http://jcn.kr ☎ 031)424-7621, H.P 010-4436-7060

박근혜 대통령, 광복 71주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 초청 오찬 가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원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등 16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고귀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보여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정부는 선열들의 독립운동 기록을 꾸준히 찾아내 그분들의 고귀한 행적을 온전히 보존하고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열들의 애국, 애민 정신이 민족의 의지를 결집시켜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 우리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선열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던 것이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걱정이 크며, 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나라를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



어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되찾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도약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든든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초청 대상자는 원로 애국지사(25명), 독립유공자 유족(85명), 올해 3·1절과 광복절 경축식에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을 친수하는 후손(9명),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38명)과 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회 대표(6명) 등 163명이다.

국의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중에는 외국인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3·1운동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세계에 알림으로써 일제의 만행을 폭로한 스코필드 박사의 외손자 콜 로버트 크로포드, 양기탁 선생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 일제의 침략상을 고발한 베델 선생의 손자 토마스 오웬 베델, 일제에 쫓기던 김구 주석을 피신시킨

중국인 자보성의 손녀 저리정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관 원로 애국지사는 참석자를 대표하여 중국지역 독립운동유적 보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 대통령께 감사 인사를 하였으며, 스코필드 박사 외손자인 콜 로버트 크로포드씨는 스코필드 박사 내한 100주년을 기념하여 “스코필드 박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후손으로서 방한하여 느낀 소감”을 발표하였다.

/이승규 기자

경북북부 1교도소 대집회 및 자매 예배

조에 교정 선교회는 경북북부제 1교도소에서 지난 6월 14일(화)에 대집회와 8월5일(금) 자매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6월 14일에 드려진 대집회는 약 600여명의 형제들과 함께 조에 교정 선교회(유순옥 목사) 사역자들과 꾸미오리 선교단(김창숙 목사)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8월 5일에 드려진 자매예배는 16명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8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형제들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신평화 목사(주능력교회)의 인도로 시작되어 김기성 집사의 대표기도, 최 0 0/손 0 0 형제의 은혜로운 특별찬양과 유순옥 목사의 특별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백운성 목사(안산임마누엘교회)는 “믿음의 비전(꿈)을 성취하자”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믿음의 꿈을



주셨다고 전하며, 지금 내가 있는 장소나 처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전하였으며, 조에 교정 선교회 유순옥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3명의 형제들과 신평화 목사 부부의 생일축하 그리고 새로 자매로 합체한 형제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별히 김기성 집사(신평화 목사) 부부는 형제들을 위하여 축복송으로 생일을 맞이한 형제들을 축하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다. 형제들의 케익 커팅과 함께 수박, 도넛, 젤리 등 가벼운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은혜로운 교제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매예배는 김기성 집사

(신평화 목사, 김희서 - 주능력교회)가족의 헌신으로 드려졌다. 무더운 여름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피서를 떠나지만 초등학교 6학년부터 교도소 사역을 따라 다녔던 딸과 함께 피서를 반납하고 이번 여름방학도 여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갔다.

이날 조에 교정 선교회 유순옥 목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라고 강조하면서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형제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사역자들과 자매예배에 참석한 형제들은 다음 만남 것을 약속하고, 짧게만 느껴지는 시간을 마치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각자의 사역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안산지사 백운성 기자

광복71주년 기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다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2016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를 울릉도와 독도에서 개최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 (이사장 최공열)는 지난 8월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울릉도 독도에서 '광복71주년 기념 2016울릉도독도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울릉도 독도에서 펼쳐진 공연은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의 산하 11개소 국장협문화예술학교에서 수년간 배운 학생들 위주로 공연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광복 71주년이 되는 올해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인천, 대전, 경북, 경남, 전북,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의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이 태고의 신비와 자연

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 쉬는 동해 유일의 도서군인 울릉도 및 독도에 모여 평화를 기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독도랑나랑음악회”에서는 나눔 챔버오케스트라(국장협장애인문화예술학교) 앙상블의 ‘독도는 우리 땅’, ‘교과서메들리’ 등의 곡으로 동해 파수꾼인 독도를 향한 연주를 하였으며, 전국장애인합창대회 대상(‘11년)팀인 영월동강합창단의 ‘아리랑’의 고운 선율은 모두가 하나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태극무용단의 독도는 우리땅 노래에 맞춘 합창 ‘우주’공연과 김하나(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경북협회)의 아름다운이 살아 숨 쉬는 동해

의 ‘아름다운나라’ 무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가 함께 독도사랑과 나라사랑의 의미있는 공연을 펼쳤다.

16일 오후 5시에 펼쳐진 “평화음악제”에서는 오프닝으로 울릉군의 장흥농악단의 신명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나눔챔버오케스트라(국장협장애인문화예술학교), 영월동강합창단, 태극무용단, 김하나(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경북협회)의 공연과 더불어 대구문화예술학교에서 ‘입춤’으로 흥을 더해 주었으며, 해외초청 공연단인 다윗송(중국)의 ‘나를 인도 하시는 이’ 노래와 키보드 연주와 가수 유찬의 ‘독도야’ 곡을 들려주었으며, 장애인

과 비장애인 및 울릉군민 등 모두가 모여 자신 있게 끼와 재능을 펼치며 희망과 감동을 주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또한 ‘평화음악제’에서는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를 위해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신중호 이사장, 울릉군 최수일 군수, 울릉군의회 정성환 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아울러, 강영우 울릉경찰서장, 서정우 울릉교육지원청장, 정인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울릉군의회의원분들과 김인식 울릉농협지부장, 이미라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울릉군관장, 김중현 (사)한국장애인미술헌회회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어 주셨다. 기타행사로는 16일~17일간 독도 방문과 울릉군의 자연탐방을 전국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함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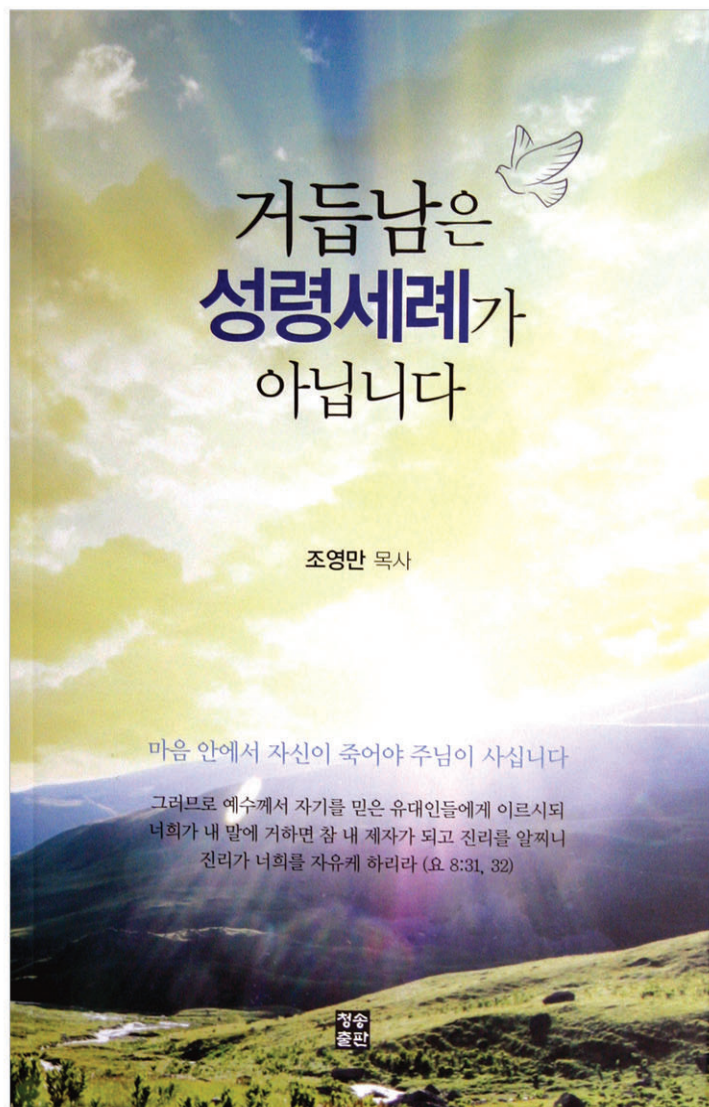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최공열 이사장은 광복 71주년 기념하여 평화를 기원하는 이번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가 성황리에 울릉도에서 개최될 수 있게 도와주신 분

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이를 계기로 장애인 엑스포가 더 발전하고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기도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문화예술 활동으로 서로 만나 대화할 수 있고, 자신의 끼와 재능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는 2011년 제주, 2012년 여수, 2013년 백령도, 2014 인천, 2015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올해 2016년 울릉군,독도에서도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내외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이어 나가며 국내장애인 축제의 큰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거듭남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이른 바(거듭남)을 늦은 비(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홍해를 건너는 것(거듭남)을 요단을 건너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거듭남)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어린 아이(거듭남)을 장성한 자(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거듭남)을 신령한 자들(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중생의 씻음(거듭남)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거듭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은혜(거듭남)를 은혜위에 은혜(성령세례)라고 하는 것과 같고
영광(거듭남)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너희와 함께 거하심(거듭남)을 너희 속에 계시겠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새 영(거듭남)을 새 마음(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구원의 속옷(거듭남)을 의의 겹옷(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아브라함이 85세에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먹고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거듭남)을 99세에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은 것(성령세례)이라고 하는 것과 같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거듭남)을 제자들이 주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순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것(성령세례)과 같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일에 실패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자 조영만

-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 총회신학교
- 국제신학대학원(MDiv/M.A)
- 인천 종합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 인천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 사제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교단 총무
-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 CTS 경인방송 운영이사
- 현재 인천시온장로교회 담임목사

책 주문 방법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 연락처 : 010-5355-2584
-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 예금주 : 시온교회
- 신한은행 : 110-029-475990
- 책 가격 : 15,000원
- 다음카페 : 시온의 딸들에게 에복을
- http://cafe.daum.net/choym.com



2016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쌓아두신 은혜

성경: 시편 31편 18-19절 찬송가 220장

본절에 이르러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다윗의 찬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지금까지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쌓아 두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숨겨놓다, 비장하다는 뜻이므로 본 19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은밀히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복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에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유업을 이어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여도

성경: 시편 31편 20절 찬송가 325장

여기서 주의 얼굴은 고난 받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급히 강림하사 꺾박받는 의로운 자를 아무도 해 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 감추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하여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제목: 당신의 자리는?

성경: 시편 31편 21절 찬송가 257장

여기서 견고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포위하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성벽(담)으로 완전히 둘러싸인이란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견고한 성은 성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안전한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상징입니다. 나는 현재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의 안전한 통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외인 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제목: 절망에서 희망으로

성경: 시편 31편 22절 찬송가 283장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는 그가 환난에 처한 최악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극한 환난에 처하여 성도는 먼저 실망을 느껴며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최악의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악의 상태는 경건한 중에, 곧 두려움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 할 것이고 당당 할 수 있습니다.

제목: 그 사랑

성경: 시편 31편 23절 찬송가 258장

다윗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있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성도가 여호와를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구절의 내용은 이미 다윗이 체험한 것입니다. 음식을 맛본 자만이 그 맛을 알 수 있고 여행도 가 본자가 그 곳을 알고 있듯이 내가 사랑하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사랑을 남에게도 홍보보낼 수 있습니다.

제목: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 시편 31편 24절 찬송가 177장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대조적인 개념으로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고 확신 가운데 있으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권면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분이 일하시도록 신뢰하며 나아 갈 때 우리는 그분의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목: 복 빌어 줄 수 있는 사람

성경: 시편 32편 1-2절 찬송가 288장

다윗이 인생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복은 사회함의 복입니다. 죄없는 인간이란 결단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죄없는 자의 복을 기원하지 않고 다만 사회함을 받은 자의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 받은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복 빌어 줄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님 안에서 참자유

성경: 시편 32편 3절 찬송가 300장

본절은 죄에 대하여 참목하는 것을 가리키며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

하지 아니하고 숨겼을 때 가장 먼저 양심의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체험을 보여 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극심한 고통과 양심의 상처로 인한 고뇌를 주님 앞에 나아와 나의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 오셔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의 손이 함께 한다

성경: 시편 32편 4절 찬송가 542장

다윗은 3 절에 언급된 자신의 양심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구절에서 주의 손은 회개치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입니다. 때로는 이 손은 치료의 손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말바닥을 치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다시 올라 올 일만 남았기에 그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성경: 시편 32편 5절 찬송가 347장

여기서 자복한다는 것은 단지 죄에 대한 양심적 가책이나 인정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음을 의미합니다. 견딜 수 없는 양심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 그리고 심령의 고갈 상태로 인하여 다윗은 자복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 온다면 나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말씀을 들을 귀 있고 깨닫는 마음 가지길 바랍니다.

제목: 그 은혜로 인하여

성경: 시편 32편 6절 찬송가 544장

다윗이 말한 내용 곧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얻은 그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 경험에 입각하여 그는 경건한 자들을 권면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고 그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갈 수 있음에 그 은혜로 지속되어져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목: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경: 시편 32편 7절 찬송가 93장

이 표현은 자신의 죄를 자백한 후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자백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느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절어도 초목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날마다 내 삶을 조율해 나간다면 얼마나 신나는 삶이 될지 상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하나님이 주어진 사람

성경: 시편 32편 8절 찬송가 190장

여기서 내가란 주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혹자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본 구절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내용을 다윗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는 데서 비롯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인이라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게 내 삶을 항상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쪽으로 조율하며 사는 성도되길 바랍니다.

제목: 하나님의 재책이

성경: 시편 32편 9절 찬송가 489장

단수(너)에서 복수(너희)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교훈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한편 본 교훈의 요지는 결코 완고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이나 노새는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이는 다스릴 수 없는 완고한 짐승으로서 미련한 인간에 비유됩니다. 완고한 짐승들에게는 주인의 매가 기다릴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책적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책적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삽시다.

제목: 신뢰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성경: 시편 32편 10절 찬송가 390장

다윗은 회개치 않는 자가 받은 많은 슬픔과 회개하는 자가 받은 은총을 대조시킴으로써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완고한 죄인이란 의미이며 보다 직접적인 의미로는 죄를 고백하기를 거절하는 완고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분리시키고 헛된 수고를 일삼지만 성령과 권능은 언제나 함께 역사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고, 문둥병자들을 씻어 주었으며,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인 사람과 권능을 나의 삶에 가져다줍니다.

또 성령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도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는 권능으로 충만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도들은 자신이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설교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JTNTV방송신분 이사장)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 부귀영화가 지위, 명예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헛된 것에 매여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병들고 지친영혼, 가난하고 외로운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소진우 목사 2015년-2016년 성회일정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컬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컬럼리스트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4-7 영광교회(주은석 목사)
7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1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0-20 봄철부흥성회(예복교회)
25-27 소망교회(김주영)
28 성산수양관(윤호원 원장)

2015년 6월
1-3 진접교회(송일욱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8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18 오산리금식기도원(함덕기 원장)
22-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비전교회(김원우 목사)

2015년 7월
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6-9 에스겔기도원(김양선 원장)
13-16 김해배달수양관(이순자 원장)
20-23 반석기도원(김영숙 원장)
27-30 에덴금식수양관(양희옥 원장)

2015년 8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7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0-13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7-20 감람산기도원(이복란 원장)
24-27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3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9월
31-1 언론사연수원(대표회장조경수 목사)
1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함덕기 원장)
3 성산수양관(윤호원 원장)
7-11 온누리복음회(엄기호 총재)
14-15 고단총회
14-16 군자대현교회(이희수 목사)
20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21-24 임직후보학교육
2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5년 10월
6-8 성산교회(정재구 목사)
12-13 정기노회
18 새빛교회(정동술 목사)
19-21 영광교회(임승원)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5-29 가을부흥성회(예복교회)

2015년 11월
2-5 광산수양관(변만석 원장)
9-11 성일교회(강인원 목사)
14-16 햇빛교회(황인준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3-25 영신교회(변조영 목사)

2015년 12월
30-4 미안리산교회(방문)
7-9 살롱교회(고정인 목사)
14-16 정동진산성그리스도교회(최낙현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8-30 반석교회(권승일 목사)
31 예복교회 송구영신예배

2016년 1월
4-8 필리핀사역자컨퍼런스
11-13 한동교회(신현덕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1 에덴교회(양희옥 목사)
24-27 선일교회(이만석 목사)

2016년 2월
1-4 감람산기도원(이복란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5-17 대구열린문교회(류정호 목사)
22-26 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3월
봄철축복대심방의달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7 안산세광교회(윤주호 목사)
11-12 정기노회
12-14 신광교회(이종서 목사)
18-20 수도교회(신순철 목사)
25-27 양문교회(노희석 목사)

2016년 4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4-7 안산세광교회(윤주호 목사)
11-12 정기노회
12-14 신광교회(이종서 목사)
18-20 수도교회(신순철 목사)
25-27 양문교회(노희석 목사)

2016년 5월
2-5 영광교회(조강수 목사)
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9-11 한우리교회(문충종 목사)
15-18 예복교회 봄철부흥성회
23-26 초대총만교회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6월
30-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5 새생교회(홍정민 목사)
6-10 필리핀 제2교회 헌당식
12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3-15 사랑의교회(최용식 목사)
16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17 신나는교회(이정기 목사)
20-24 선교지선생여름세미나
27-30 사랑제일교회(오만근 목사)

2016년 7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3-9 심야특별기도대성회(예복교회)
11-13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
18-21 소망교회(최유식 목사)
25-28 에덴금식수양관(양희옥 목사)
31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016년 8월
10-12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5-18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2-25 감람산기도원(이복란 원장)
28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9-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6년 9월
5-8 고단총회
12-17 추석주간
19-23 선교지방문
2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6-28 다사랑교회(방종현 목사)

2016년 10월
3-6 에스겔교회(김양선 목사)
10-11 정기노회
17-21 임원수원회
23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4-27 새진영교회(설정학 목사)
31-11.2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2016년 11월
6-9 살롱교회(고정인 목사)
14-16 경천교회(이원정 목사)
20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21-26 네팔산교회
28-30 행복예수원(대영건 목사)

2016년 12월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재 원장)
18-24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26-30 온사랑교회(최태식 목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예복교회

수도권지역 경기도 여주 전원주택 분양

전원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2016년 9월 30일 예정!

은퇴하신 목사님!

성도님들의 전원주택으로서, 후회 없도록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30여채의 주택과 단지 내에 수양관을 준비 중입니다.

주인이 직접 분양합니다.

수양관을 준비 중입니다

교통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 56.95km) 2016년 11월 개통예정.
- ◆ 대신 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분). • 강남, 분당에서 대신 IC 까지 30분.
-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 IC까지 45분.
- ◆ 여주 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 57km) 2016년 9월 개통예정.
-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차량 12분.
-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 20분.(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

교육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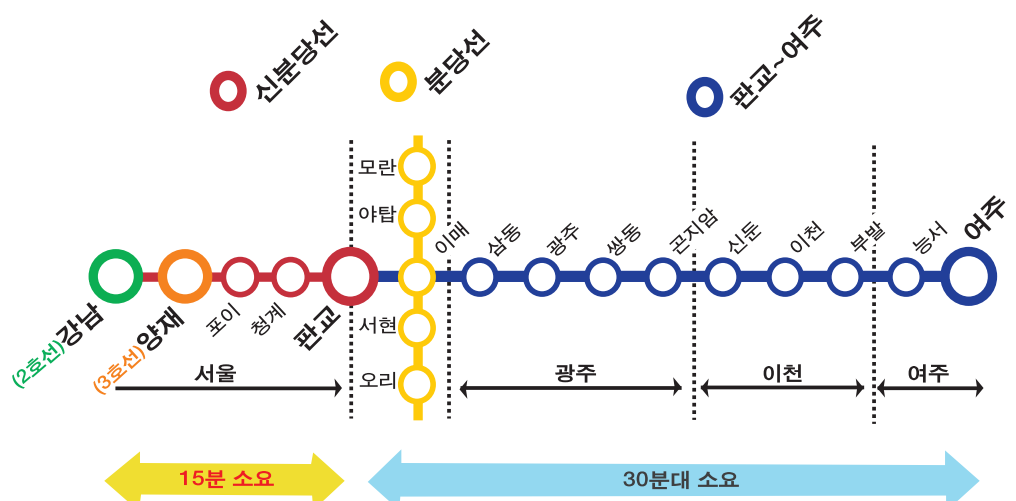
- ◆ 초등학교, 여중 · 고등학교,
남중 · 고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전원주택

- ♥ (약 1억 4천~1억 6천만원)
- 대지 100평, 주택 20평(1층), 25평(2층), 28평(2층)
- 고급 소파, 대형TV, 고급 싱크대, 정원, 잔디,
파일나무, 꽃나무, 팬스, CCTV, 텃밭 30평
- 넓은 진입로, 주택단지 중앙로 7.5m
- 여주상수도개설
- 농협 대출 40% 가능(이자 4%대).

기 타

- ◆ 전원주택에서 1km= 면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농협, 축협, 병원, 약국, 마트, 복지관,
대형운동장 등.
- 한강 자전거도로 3km, • 이포보 4km,
• 세종대왕릉 12km,
• 명성왕후 생가 15km, • 여주 도자기 공장 5km.



분양문의
02) 854-1355

I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지역(5,000평)

I 전원주택 홍보 : 010-5468-6574, 032)762-3031 I <http://jtntv.kr> (JTNTV방송) 배너광고 중